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 재현과 담론

Representation of Homosexuality and Related Discourse in <Life is Beautiful>

이자혜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Ja-Hye Lee(jhcybele@dongseo.ac.kr)

요약

본 연구는 최근 미디어에서 동성애의 재현이 표면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류 미디어인 지상파 방송에서의 동성애 재현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적 소수자로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주류 미디어의 재현의 경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의 재현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 동일 드라마 내에서의 이성애 커플과 동성애 커플의 갈등의 원인과 유형,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의 재현 방식의 비교를 통하여 동성애의 재현에서 허용되고 배제된 재현 방식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성애 커플에서 재현되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이 동성애 커플에는 부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성애 커플의 경우 가족과의 심화된 대인관계 갈등 속에서 피해자로 묘사됨으로써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또한 이성애 커플은 갈등의 해결에 주체적인 것으로, 동성애 커플은 갈등은 중재자의 적극 개입을 통해 비주체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 중심어 : | TV 드라마 | 동성애 | 재현 전략 | 담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ategy of representation of homosexuality in the mainstream media and its meaning. And it also concerns what would be the limit of representations of homosexuality and what would be the discourse these representations produce in the major terrestrial broadcasting. For this investigation, we conducted the analysis of <Life is Beautiful>, the mainstream television drama, focused on the gay couple characters and their representations of conflicts and resolutions by comparing with the two heterosexual couples to figure out the differentiated representation strategies of homosexuality. As results of the analysis, the representation of sociogenic cause of conflict is absent for gay couple while it was found in the case of one heterosexual couple. And gay couple is exposed to the interpersonal conflicts against their family members than heterosexual couples and described as victims. Lastly, gay couple was represented as needing mediators to solve their problems while heterosexual couple was represented as ensuring subjectivity for the resolutions of conflicts.

■ keyword : | Television Drama | Homosexuality | Strategies of Representation | Discourse |

* 본 연구는 2010년 동서대학교 동서프린티어과제 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접수번호 : #121030-005

접수일자 : 2012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29일

교신저자 : 이자혜, e-mail : jhcybele@dongseo.ac.kr

I. 서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으로서의 젠더(gender)의 실천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회의 정치, 문화, 이념적 성향을 재단할 수 있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한 형식으로서 텔레비전은 사회적 성 담론을 생산하는 중요한 장이 된다 [1]. 최근 텔레비전 드라마의 소재와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남녀의 젠더 역학의 변화 뿐 아니라 남녀의 성 역할의 전도 양상까지, 드라마 속의 젠더의 표현 역시 다양화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제 3의 성이라 불리는 동성애의 재현의 양적 증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는 그 동안 국내에서 단막극 형식으로만 존재해온 동성애 소재를 전면적으로 묘사한 최초의 지상파 연속극이다.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 유지시키는 데 공고한 역할을 해 온 지상파 방송에서 그간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온 동성애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킨 사실에 사회 각계와 네티즌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방영 초반부터 환영과 우려를 표하는 다양한 신문 기사가 쏟아지는가 하면 2010년 10월 29일자 <조선일보>에는 ‘참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과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의 이름으로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는 원색적인 문구의 광고가 게재되면서, 이 광고에 대한 김수현 작가의 반박 및 네티즌들의 찬반 표명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사실, 국내 주류 미디어의 동성애의 재현은 드라마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극의 재미를 위한 소재로만 활용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동성애가 중심 서사가 되는 일회성 단막극들이 간헐적으로 등장한 바 있으나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총 63회의 주말 가족 드라마로 편성된 <인생은 아름다워>는 동성애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면서 평균 18.8%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TNmS 제공), 그 파장이 후속 작품인 <시크

릿 가든>(SBS, 2010-2011)의 동성애 캐릭터 등장 문제, 그리고 단막극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KBS, 2011)로 인한 공영방송의 동성애 드라마 방영에 대한 격한 찬반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동성애 드라마의 방영 여부가 아니라, 주류 미디어가 동성애를 재현하는 방식과 이를 통해 생산되는 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사회나 담론의 생산 과정에서 이를 선별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존재하는데, 푸코(Foucault)는 <성의 역사(Histoire de la Sexualité)>에서 이러한 배제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담론은) 이야기 된 것과 감추어진 것, 허용된 것과 금지된 표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말하는 사람에 따라 또는 그가 속해있는 제도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 이는 곧, 대중문화에 있어 ‘우리’와 ‘그들’을 경계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담론의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주류 미디어인 방송이 경계 짓는 방식, 즉 허용하고 감춘 재현의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주류 미디어가 동성애에 대해 어떠한 담론을 생산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담론의 생산자로서의 주류 미디어인 방송이 동성애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전략에 주목하여 주류 매체에서 최초로 직접적이고 연속적으로 제시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의 재현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주류 미디어의 동성애 재현의 문제

1. 동성애 재현의 통제와 비정치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성애 문화가 양성화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방송에서의 동성애 재현에 대한 연구는 문화계발효과이론(Cultivation Theory)에 근거한 동성애 재현의 가시성과 영향에 대한 연구들과 동성애의 재현 방식과 함의에 대한 성 정치학적 접근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그로스(Gross)는 문화계발효과적 측면에서 주류 미디어가 제공하는 세계는 사회 현실의 투명한 반영인 듯 수용자에게 제시되며 매개된 사실성은 그 자체로서 권

력의 행사라 설명한다. 또한 성적 소수 집단을 “재현되지 않음(non-representation)”을 통해 은폐하고, 비주류의 낮은 지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미디어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다양한 권력계층의 하위에 있는 이들은 그들의 상대적인 비가시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지위를 위치 짓게 되며, 이것이 바로 상징적 소멸(symbolic annihilation)의 형태인 것이다. 어떠한 소수 집단이 시각이 가시성(visibility)을 획득할 때조차, 그 재현 방식은 공중의 의제를 규정하는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와 편향성을 반영하며, 이 엘리트들은 대부분 중년의 중산층 백인 남성이며, 전적으로 이성애자인 것이다 [3].” 결국 그로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류 미디어에서의 동성애의 재현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첫째로 동성애 캐릭터의 부재, 즉 비가시성으로 인한 주변화의 문제며, 둘째로는 이성애주의 시각에 의한 왜곡된 재현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은 동성애 재현에 관련된 후속 연구들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전자는 재현의 가시성을 측정하는 양적 연구에 있어, 후자는 왜곡된 재현의 문제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에 있어 이론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방송에서의 동성애 재현은 시트콤 <엘렌(Ellen)>(ABC, 1994-1998)의 등장과 더불어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임 타임에 편성된 드라마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의 동성애 재현의 가시성과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주장과[4], 반대로 동성애 재현은 긍정적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5]이 공존한다.

이처럼 동성애 재현의 양적 가시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상기의 양적 분석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재현의 가시성을 측정하는 양적 연구들은 재현이 담론을 생산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미디어의 종류 혹은 노출 횟수 등을 기준으로 배양효과를 규명하려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시성 자체보다는 “수용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동성애 관련 행위,

대사 등이 제시된 방식”, 즉 재현 방식이 이성애적 지배 담론에 도전하고 있는가의 여부라는 것이다[6].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주류 미디어의 재현에 관한 질적 연구들의 논의는 재현에 내재된 의미에 집중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주류 미디어에서의 동성애의 재현은 동성애를 섹슈얼리티의 전통적 관습에의 위협으로 보는 이성애적 아젠다에 의존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내러티브상에서 동성애를 이성애 캐릭터에게 일련의 ‘문제’로서 다루거나[7], 남성 동성애자를 이성애자와 일치하게 재현함으로써 “정상화(normalized)”하거나[8], 남성 동성애자를 성적 욕망이 배제된, 철저하게 비 성적(nonsexual) 캐릭터로 재현하는 “감춤의 전략(the strategy of the closet)[9]”을 사용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재현 경향은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Showcase, 2000-2005)와 <엘워드(The L Word)>(Showtime, 2004-2009)를 통해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데, 다양한 동성애 캐릭터들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알려져야 하는지의 담론을 이끌어냈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10], 결국 이성애자들이 배제된 그들만의 “동성애적 유토피아(homosexual utopia)”의 재현으로 인해 결국 여전히 이성애규범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11].

한편, 2001년 발표된 도우(Dow)의 논문은 미디어의 동성애 재현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성애 재현의 비정치화(depolicitize)를 통해 담론을 통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우는 시트콤 <엘렌>과 동성애자 주인공을 연기한 여배우 엘렌(Ellen DeGeneres)의 실제 커밍아웃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방식을 분석하면서, 엘렌의 커밍아웃은 드라마의 내러티브상에서나 배우 개인의 경우에서나 동성애자 재현의 통제와 비정치화 전략에 따름을 지적한다. 드라마 상에서의 엘렌이 커밍아웃 이후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은 동성애 혐오 근무환경, 즉 사회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철저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재현되고 있으며, 동성애 운동가들에 대한 엘렌의 태도 역시 회의적으로, 동성애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배우 엘렌의 커밍아웃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사회적 맥락 없이 배우 개인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함으로써 그녀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도우는 이러한 비정치화 된 재현 방식이 당시 사회의 동성애자들의 정치적 위상을 배제시키고 있으며 “미디어의 이러한 정치적 지분의 회피는 단지 다소 생략된 정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의 표현, 결국 권력의 발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12]. 이러한 주류 미디어의 비정치화 전략, 즉 사회적 갈등 요인을 재현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은 이후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지적되고 있다[13].

결론적으로 미국 주류 미디어인 방송이 동성애를 재현하는 방식의 문제는 첫째로, 철저히 이성애적 시각에 의존하여 이성애적 문화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둘째로, 동성애자로서 이성애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대한 문제나 갈등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의 생략으로 인한 동성애의 비정치화로 요약될 수 있다.

2. 한국 텔레비전의 동성애 재현 방식

국내에서의 동성애의 재현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간헐적으로 단편 드라마의 형태로 방영되었으나 대중적 관심은 크게 받지 못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성간이었던 남녀가 동성으로 오인한 채 사랑이 시작되었다가 결국 이성간임을 확인하는 방식 - <커피 프린스 1호점>(MBC, 2007), <바람의 화원>(SBS, 2008), <미남이세네요>(SBS, 2009), <성균관 스캔들>(KBS2, 2010) - 또는 동성애자인줄로 오인한 남성을 사랑하지만 결국 그가 이성애자임이 밝혀지며 사랑의 결실을 맺는 <개인의 취향>(MBC, 2010) 등 이른바 ‘유사 동성애’를 활용한 작품들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된다. 유사 동성애 작품들의 서사에 있어 중심이 되는 전략은 이성애적 사랑지상주의로의 회귀라는 점으로, 홍지아는 동성으로 오인한 인물들의 사랑이 결과적으로 이성임을 확인하고 해피엔딩으로 맺어지는 ‘낭만적 서

사’를 통해 이성애적 사랑지상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듯 동성애의 성 정치학적 시각은 배제한 채 낭만적 사랑만을 강조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한다[14]. 결국 유사 동성애 드라마의 경우, 동성애는 소재로서의 검열을 벗어나긴 했지만 엔터테인먼트의 소재로 환원될 뿐이라는 것이다[15]. 반면 주창윤은 동성애를 직접적 소재로 한 드라마의 서사적 특징을 분석한 바 있는데, 경우 남성 동성애의 재현은 플롯, 시점, 작가의 묘사, 회상 등을 활용하여 동성애를 감추다가 극의 후반에 이를 드러내는 전략, 즉 “감춤 속의 드러냄”의 전략을, 여성 동성애의 재현은 보다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드러내지만 그 묘사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암시적인 “드러냄 속의 감춤”의 전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16].

이렇듯 유사 동성애 드라마가 상업적 목적으로 동성애를 활용하거나, 직접적 동성애 소재의 작품들이 서사에 있어 감춤의 전략을 채택하던 방식과 달리 <인생은 아름다워>는 보다 “드러내 놓고” 동성애를 전면배치시킨다. 최근 <인생은 아름다워>의 방영이 주는 사회적 과장을 반영하듯, 최근 관련된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는데, <인생은 아름다워>는 인간 영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한 작가적 진정성과 언어능력, 그리고 사회적 의제 설정 능력을 통해 지배적 성 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의 형성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입장[17], 결국 동성애의 문제를 가족 드라마라는 장르 내에서 결국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재확인[18]” 했다는 입장,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 주장들조차도 동성애자는 결국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까지[19], <인생은 아름다워>가 드라마 내적, 외적으로 생산해낸 서사와 그 의미를 둘러싼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이들은 각각 김수현 작가론 분석, 가족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 분석, 드라마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동성애 서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한 바, 상기 연구들과 본 연구가 차별화 되는 점은 ‘우리’와 ‘그들’을 경계를 만들어내는 ‘허용되고 금지된’ 구체적인 재현의 전략을 추출하기 위해 극중 동성애와 이성애의 서사를 비

교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SBS에서 2010년 3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방영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전편(총 63화)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펜션을 경영하는 재혼 부부 병태와 민재를 중심으로 4대가 한 집에 모여 살며 겪어나가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중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드라마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30대 동성에 커플(경수/태섭)과 20대 이성에 커플(호섭/연주), 40대 이성에 커플(병준/아라)로, 드라마의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총 7 커플 중 극중에서 연애 과정을 통해 갈등의 발생과 해소 과정을 거쳐 결혼 혹은 미래를 약속하는 엔딩에 이르는 유사한 조건에 있는 커플들이다.

2.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생산하는 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드라마 내에서 동성애와 이성애의 재현 전략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내에서 이성애 커플과 동성애 커플의 재현 방식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 재현 방식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성된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재현 방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인물들 간의 갈등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드라마의 갈등구조는 서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의 발단과 진행, 해결과정 자체가 드라마의 서사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등장인물 사이에 형성되는 대립 구

조는 곧 힘의 충돌 과정으로, 갈등이 진행되고 해결되는 방식을 통해 텍스트에 내재된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를 밝혀낼 수 있으며[20], 또한 갈등 해결의 주요 역할 수행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갈등의 해결을 위해 다른 주체들과의 연대를 모색 하는가에 의해 인물들 간의 권력적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다[21]. 때문에 갈등의 상호작용 및 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들 간의 권력관계는 드라마의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동성에 커플 중심의 서사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성애 커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동성애 커플에서만 드러나는, 혹은 배제된 갈등의 유형과 갈등 해결 과정의 세부 사항들(갈등 주장전략, 대응행위 등의 상호작용 및 갈등 해소 여부와 해결의 주체 등)의 대립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그 차이로부터 의미가 생성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갈등의 유형에 있어서는 그간의 주류 미디어인 방송에서의 동성애 재현에서 누락되어온 사회적 정치적 맥락의 재현 여부를 파악하기 대인관계 갈등(커플 내적, 커플 외적)과 사회적 갈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갈등의 해결 방식의 경우, 등장인물간의 갈등의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은 이들의 권력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갈등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재현을 분석함에 있어 하종원이 드라마에서의 가족 간 권력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한 ‘갈등 시발자의 주장 전략(강제적, 합법적, 관계적)’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 행위(순응적, 거부적, 방관적)’를 사용하였다. 이 분류는 스킬과 월레스(Skill & Wallace)가 미국 프라임타임 드라마에 드러난 갈등의 상호작용과 권력관계의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위해 사용한 갈등 전략의 유형을 한국 드라마의 특성에 맞게 간소화 한 것으로, 본 연구가 통계에 의한 양적 연구는 아니지만 이성애와 동성애 커플의 차별화된 재현 방식 안에는 갈등 전략의 빈도 역시 참조되어야 할 요소이며, 인물간의 권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 기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채택하였다. 갈등의 시발자의 주장 전략에서 강제적 전략이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화를 내거나 벌을 행사하는 방식, 합법적 전략은 사회적 규범에 의해 공인된 권리에 의존하는 방식, 관계적 전략은 시

발자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반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편, 그러한 전략에 대한 대응은 시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응적 행위,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는 거부적 행위, 그리고 특별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방관적 행위로 나뉜다[22]. 또한 연속극에서의 대부분의 갈등은 여러 차례에 걸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데, 같은 이유로 반복되는 갈등이라 하더라도 갈등의 상호작용은 매번 같은 것이 아니므로 개개의 갈등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커플들의 갈등 해소 여부와 갈등 해결 주체의 재현 방식의 차이점을 통해 해소되지 않은 갈등과 갈등의 중재자의 개입 여부 및 그 함의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갈등 분석을 토대로, 동성애 커플이 이성애 커플과 차별화 된 재현 전략을 추출하고 재현 전략을 통해 생산되는 담론을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이성애 커플과 동성애 커플의 갈등의 유형 및 갈등의 상호작용의 재현

1.1 호섭/연주 커플

이들 커플과 관련된 갈등의 재현은 총 32회로, 이 중 커플간의 갈등은 21회, 커플 외적 갈등은 총 11회로 커플간의 대인관계가 갈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결혼 전 연주의 내성적인 성격과 과거 상처로 인해 마음을 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커플 내적 대인관계 갈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커플 외적 갈등의 경우 결혼 전후 시누이 역할을 하려 드는 호섭의 여동생 초롱과의 갈등이 경미한 수준으로 재현되어 가족 간의 갈등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호섭과 연주의 커플간 갈등에서 주된 시발자는 연주로(12회) 주장 전략에 있어 만남을 거부하는 강제적 전략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8회), 이에 대해 호섭은 전반적으로 연주의 마음이 풀리기를 기다리며 순응적이나 방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갈등의 상호작용 면에서 살펴본다면 이 커플 간에는 연주가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이

는 남녀 간의 젠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보다는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상처로 인하여 방어적인 연주에 대한 호섭의 배려로 재현됨으로써 작가 김수현의 가족 드라마의 특징인, 남자든 여자든 약자, 희생자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지향하는 ‘인본주의 경향성[23]’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2 병준/아라 커플

병준/아라 커플과 관련된 갈등은 총 42회로 이 중 커플 간 갈등이 20회, 병준과 가족과의 갈등이 19회, 병준의 회장(아라 아버지)과의 갈등이 1회, 병준의 회사 사장과 갈등이 2회로, 병준 가족과 아라 간의 갈등은 부재한다. 갈등의 원인은 살펴보면 매사에 이성적인 병준과 감정적이고 제멋대로인 아라와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7회), 결혼을 피하는 병준과 결혼을 원하는 아라의 갈등(7회), 또한 결혼 결심 후 회장의 재산 운운으로 자존심이 상한 병준과 회장과 갈등(1회), 이로 인해 파혼을 선언한 병준과 아라와의 갈등(5회), 아라와의 문제로 병준을 질책하는 병준과 사장의 갈등(2회), 그리고 한 방을 공유하는 병준과 동생 병걸 간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13회), 첩과 살다 쫓겨나 본처와 자식들에게 돌아온 아버지로 인한 병준과 가족간의 갈등(4회)이 재현되고 있다.

병준/아라 커플의 갈등에 있어 주목할 것은 이들의 ‘성격 차이’ 혹은 ‘자존심의 문제’로 묘사되는 상대방의 갈등이 사회적 요인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회장의 딸이며 자신의 상사인 아라가 자신을 개인 비서나 기사처럼 부리는 데 대한 불만(13화, 14화, 23화), 병준이 아라에게 찢찢매더라는 병걸의 비아냥거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화를 내는 반응(14화), 아라 문제로 사장에게 질책을 들은 데 대한 불쾌함의 표현(15화), 아라의 청혼에 자신이 ‘도우미’로 전략할 것을 우려하는 표현(32화) 등, 병준이 아라와의 관계에 있어 겪게 되는 갈등의 배경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분의 차이, 즉 외부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5회에서 병준의 사장은 병준에게 아라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데 대해 병준을 책망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병준이 아라의 집으로 찾아가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는 병준과

아라 사이의 중요한 갈등, 즉 사회적 신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단적으로 들어나는 예라 할 수 있다.

병준 : 왜 다시 일본으로 가고 싶은 건지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라 : 양전무가 나를 싫어하니까요.(중략) 나는.. 친구가 돼주길 바랬어요.

병준 : 대표님은 어디까지나 회사를 대표하는 제 사장입니다. 대표와 친구가 된다는 건 월급쟁이한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략) 회장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회장님께서 사장님에게 꾸중하시고, 전 사장님께 질책 당했습니다. 그게 사장님과 제게 얼마나 큰 데미지고 스트레스인지 모르시나요?

아라 : 그냥 아버지께.. 투정 부렸는데요.. (중략)

병준 : 앞으로는 그런 투정 삼가해 주십시오!. 아이가 던지는 돌팔매에 개구리도, 두꺼비도 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 커플의 가장 심화된 갈등의 원인이 된 회장의 “재산에 사심을 두지 말라”는 발언은 그간 병준에게 지속적 갈등 요인이 되어왔던 경제적 사회적 신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병준/아라 커플의 갈등이 단순한 대인관계 갈등이라기보다는 외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의 공존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이들 커플 사이의 갈등의 상호작용 역시 사회적 권력 관계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병준이 동생 병걸 및 다른 가족과의 갈등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갈등 전략은 대부분 강제적 주장(총 11회의 주장 전략 중 8회)과 거부적 대응(총 8회의 대응 행위 중 7회)인 데 비하여 아라와의 관계에서는 상당 부분 합법적 주장(총 9회 중 4회)과 순응적 대응(총 11회 중 3회)이 드러나며, 병준의 주장 전략에 대해 아라는 일관적인 거부 행위(총 9회 중 8회)를 보이는 것으로 재현된다. 이는 단지 각각의 성격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상사-부하직원이라는 사회적 신분 차이의 권력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 경수/태섭 커플

경수/태섭 커플과 관련된 갈등의 재현 횟수는 총 46회로, 이 중 커플간의 갈등은 6회에 불과하며, 이 중 태섭과 경수의 내적 갈등이 5회에 걸쳐 재현된다. 또한 커플 외적 갈등은 총 36회로 이성에 커플에 비해 커플 외적 인물, 특히 가족과의 갈등이 주를 이루며 강한 극적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경수가 동성애자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수의 가족(특히 어머니)으로 인한 갈등이 24회로 주를 이루며, 이밖에 경수와와의 재결함을 원하는 전부인 나연으로 인한 갈등(3회), 태섭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대한 막내 삼촌 병걸의 거부와 혐오로 인한 갈등(4회) 등이 있다.

갈등의 유형은 가족과의 대인관계 갈등이 지배적으로 외부 사회적 갈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경수와 태섭 둘 중 누구도 가족과 그들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보이는 두 명의 인물(채영, 금지) 이외에는 커밍아웃의 필요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대학 강의를 하는 경수의 경우는 물론,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태섭의 경우 역시 직장에서는 커밍아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이들 관계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이라도 제기되면 이는 모면해야 할 당황스런 순간들일 뿐이다. 특히, 태섭의 경우, 경수가 선물해준 커플링을 끼고 있는 것을 동료에게 들켜거나(40화) 동료 여의사가 어머니의 말을 빌려 “그냥 친구 아니고 사귀는 사이일 것”이라 말하는 상황(53화)에서의 당황한 반응은 모두 사회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은 단지 ‘숨겨야 할’ 사실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 커플이 겪는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금기 때문이라는 점은 상식적일 정도로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드라마 상에서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커플링을 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갈등(30화) 정도에 머물 뿐, 심지어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의 애정싸움을 들은 택시 기사로부터 “재수 없다”며 쫓겨나는 상황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56화).

결국 가족 이외의 대상에게는 커밍아웃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생략하는 재현은 동성애자기 커밍아웃을 통

하여 자신의 삶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대한 금기를 드러낸다. 동시에 커밍아웃에 따르는 문제, 즉 이성애 사회에서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데 따르는 결과를 배제 시킴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 자체를 통제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경수/태섭 커플의 주된 갈등인 경수 부모와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두 사람은 경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태섭의 친구 금지에게 동성애자임을 밝히며(57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관심'이라 말하는 것으로 <인생은 아름다워>가 생산하는 동성애 담론의 실체를 드러낸다.

갈등의 상호작용의 경우, 총 6회에 불과한 커플 간 갈등에서 서로에 대한 이들의 주장 전략은 모두 관계적인 것으로, 대응 행위는 거부와 순응, 방관이 각기 1-2 회 수준에서 고루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경수/태섭 커플은 극 중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커플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모범적' 커플의 서사에 주된 극적 긴장을 부여하는 경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재현은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미디어의 재현 전략을 잘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경수 어머니는 극 중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가장 신랄하게 반영하는 인물로 그 주장 전략은 주로 강제적(11회), 합법적(5회)이며, 이에 대해 경수의 경우 동성애를 버리고 '정상'으로 돌아오라는 강요에 대한 거부(총 13회의 대응 행위 중 11회)로 대응하지만 역부족이며, 태섭의 경우 경수와 헤어지라는 협박과 강요에 대해 순응적(총 6회의 대응 행위 중 4회)인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렇듯 경수 어머니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처사와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경수와 태섭의 대비는 극단적인 이성애주의 가해자 대 동성애 피해자의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동성애 문제를 인간적 동정심 차원에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재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 이성애 커플과 동성애 커플의 갈등의 해소 여부 및 갈등 해소의 주체 재현

2.1 호섭/연주 커플

이들 커플의 주된 갈등은 연주의 과거 남자친구로 인

한 상처와 이로 인하여 호섭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못함에 기인하며, 이는 연주가 호섭을 받아들임으로써(32화) 해소되며 결혼(57화) 이후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 확인을 위한 소소한 갈등이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커플 간 갈등은 해소된 것으로 재현된다. 또한 갑자기 시누이 역할을 하려 드는 초롱과 이들 커플간의 갈등도 존재했으나 초롱이 같은 여자 입장으로 연주를 이해하면서(44화) 해소된다.

갈등 해결의 주체는 당사자들이며 커플 간, 또는 가족과의 갈등에 중재자는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특히 집안의 다양한 인물들 간의 갈등(시부모, 남편과 그 형제들, 딸과 사위, 태섭의 커밍아웃 이후의 가족 관계 등)에 조정자 역할을 하는 민재이지만 이들의 갈등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커플 스스로 주체성을 확보한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2.2 병준/아라 커플

병준/아라 커플의 커플 간 대인관계 갈등의 경우 초반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해소되며, 결혼을 원하는 아라와 결혼을 피하는 병준과의 갈등은 45회에서 병준이 갑작스레 가족에게 결혼 발표를 함으로서 해소되는 듯 보이나 이후 회장과의 갈등으로 심화된다. 이렇게 심화된 갈등의 배경에는 극 중 지속적으로 제시된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이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이 존재하는데, 결과적으로 57회에서 병준이 자신이 지나치게 자존심을 내세운 것을 반성하고 아라에게 사과함으로써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들 커플의 갈등의 해소는 병준과 아라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커플의 가장 큰 위기인 파혼 선언 이후 병준의 어머니와 동생 병걸이 중재에 나서려 하나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며, 결국 가족의 조언을 고려하여 병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제를 깨닫고 자존심보다는 사랑을 택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주체로 재현되고 있다.

2.3 경수/태섭 커플

경수/태섭 커플의 주된 갈등인 경수 어머니와의 문제

는 55회에서 경수 어머니가 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냥 특별한 친구 정도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해소된다. 이는 두 사람이 동성애자인 사실 자체는 부정하며 이들의 사랑을 우정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그침으로써 근본적인 갈등의 해소라기보다는 표면적인 휴전에 불과한 것으로 재현된다. 그 밖의 태섭 가족과 태섭 간, 태섭과 채영 간, 경수와 전부인 수나 간의 갈등은 모두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다른 이성애 커플들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태섭과 경수의 내적 갈등과 해소가 재현되는데, 태섭의 경우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죄책감(5화), 경수가 선물해주던 커플링을 병원에서 할지 말지에 대한 갈등(30화, 40화), 경수의 전처와 딸에 대한 태섭의 질투와 경수의 죄책감(42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적 갈등의 해소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담론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동성애자로서 이성애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대한 갈등을 그리고 있으나, 그 재현 방식은 철저히 가족 중심의 개인적인 문제로 제한되고 있다. 가족에 대한 태섭의 죄책감은 커밍아웃과 더불어 말끔히 해소되며, 더구나 성 정체성 문제에 기인한 오해로 인하여 그간 존재해 온 가족과의 갈등 역시 커밍아웃과 더불어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막내삼촌 병걸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태섭이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경수의 존재를 큰 반발 없이 인정한다. 태섭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이는 이 비현실적인 가족의 존재는 작가 김수현 특유의 가족주의라는 틀 안에 동성애 문제를 가둬두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커플링 문제에 대한 태섭의 내적 갈등은 커플링을 하고도 동료들에게 동성애 정체성을 들키지 않는 것으로 해소됨으로써 결국 동성애 정체성은 사회적으로는 절대 감추어야 할 사실이며 동성애를 포용할 수 있는 한계는 가족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또한 이성애 커플들의 경우 결혼을 통하여 사랑이 완성되며 갈등이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동성애 커플의 경우 경수의 결혼 제안 이후 제작진 스스로 결혼식이 아닌 연약식으로 서사 전략을 수정하였으며 그마저도 가족들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둘만의 연약식으로 재현을 제한하여 대비를 이룬다. 결국 사회적 반대

여론과 촬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예정되었던 연약식조차 방영되지 못했으며 이들이 나눈 커플링을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쳐 재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동성애자의 결혼 문제는 외부 사회적 문제와의 충돌을 드러내며 성 정치학의 이슈를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회적 압력에 의해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동성애자의 결혼을 그들의 삶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사회적 담론 형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갈등 해결의 주체에 관한 재현에서도 이들 커플과 이성애 커플과는 차이점이 드러난다. 경수/태섭 커플의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태섭의 새어머니 민재가 다른 가족들, 그리고 경수 어머니와의 갈등에서 중재자로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재현되며, 경수와 부모간의 갈등에서는 경수의 아버지가 아들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수 어머니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하며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자의 역할은 다른 이성애 커플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동성애 커플의 갈등의 해소는 가족 중 가장 발언권을 지닌 인물, 즉 이성애 권력자의 용인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3. 배제와 금기를 통한 선택적 재현 전략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의 동성애의 재현은 양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성애 커플들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며 서사의 중심이 되고 있으나, 그 재현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첫째로, 갈등 유형에 있어 동성애 커플의 경우 이성애 커플에서는 재현된 바 있는 외부 사회적 요인이 배제된 채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 중심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사전 연구들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배제를 통한 비정치화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취급되어 가족, 친구 등의 가까운 관계는 물론 사회적, 법적으로도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으며[24] 동성애자들의 우울 및 자살 척도는 이성애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고, 낮은 삶의 질과 높은 소외감 속에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25], 동성애 문제를 지극히 비현실적인 가족 내에 가둬둠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확장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갈등의 상호작용에 있어 이성애 커플에 비해 상대방의 동의나 불응을 구하는 관계적 주장 전략을, 대응 행위는 동성애 정체성의 포기나 부정에 대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순응적이나 방관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스로 갈등을 만들지 않는 인물들로 재현됨으로써 성격적 결함과 이에 따른 갈등이 제시되는 이성애 커플들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배려 깊고 사교가 건전한 인물들로 재현된다. 또한 다른 이성애 커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강력할 갈등 시발자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갈등 전략에 의해 약자로 재현되고 있다. 특히 경수 어머니의 강제적 갈등 주장 전략에 대한 태섭의 순응적 대응, 그리고 경수의 가족과 태섭의 가족의 커밍아웃 이후의 대응 방식의 대비를 통하여 시청자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동성애를 이해받고 위로 받아야 할 문제로 재현한다. 이러한 전략은 앞서 언급된 도우가 지적하듯 동성애자를 ‘포스터 차일드(poster-child)’로 만듦으로써 주류 미디어의 동성애 재현의 관용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셋째로, 이성애 커플은 스스로 갈등 해결의 주체로 재현되는 반면 동성애 커플의 갈등 해결은 결국 가족 내 의사 결정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에 따르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동성애 당사자들은 주체가 아닌 비체로서 재현되며, 동성애를 심판하든, 비난하든, 이해하든, 용서하든, 그것은 이성애자의 몫이라는 확고한 권력관계의 명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인생은 아름다워>가 생산하는 동성애 담론은 철저히 이성애적 시각에 입각해 동성애를 비정치화 비권력화 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화 된 존재로서의 소수 집단에 대한 주류 미디어의 재현 전략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주류 미디어인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에 대한 재현 방식의 분석을 통해 소수 집단의 현실의 문제들을 배제와 금기를 통해 은폐함으로써 여전히 낮은 지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미디어의 전략과 이를 통해 생산되는 주류 미디어의 성 담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동성애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었던 점, 다시 말해 드라마 내에서 다른 이성애 커플들과 동등한 수준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드라마 외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성 소수자에 대한 지배 담론에 도전할 수는 없다. 이마저도 이름만으로도 권력이라 일컬어지는 김수현 작가이기에 가능했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 커플의 ‘아름다운 인생’의 재현은 주류 미디어의 허용과 금지의 재현 전략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성적 소수자로서의 동성애자의 재현의 문제는 성별, 인종, 장애, 경제적 계급 등에 따른 여타 소수 집단에 대한 재현의 문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소수자의 삶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재현의 정치학 측면에서의 다양한 연구의 필요할 것이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동성애적 시각에서 동성애 문제를 재현한 대안적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동성애의 인권에 대한 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거나, 동성애 드라마 방영 직후에 온라인상에서의 시청자 반응이나 수용자 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시청자의 동성애에 대한 수용 태도에 미친 영향과 동성애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의 생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 개발효과를 함께 규명해 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1] 김훈순, 김미선, “여성 담론 생산의 장(場)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 :30대 미혼여성의 일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1호, pp.244-270, 2008.
- [2] M.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1: La*

- volonté de savior*, Gallimard, 1976. pp. 132.
- [3] L. Gross, "What Is Wrong with This Picture? Lesbian Women and Gay Men on Television" In R. Ringer (Eds.), *Queer Words, Queer Images: Communic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Homosexuality*, pp.143-156, New York University, 1994.
- [4] A. B. Raley and J. L. Lucas, "Stereotype or Success?," *J. of Homosexuality*, Vol.51, No.2, pp.19-38, 2006.
- [5] S. B. Netzley, "Visibility That Demystifies: Gays, Gender, and Sex on Television," *J. of Homosexuality*, Vol.57, Iss.8, pp.968-986, 2010.
- [6] D. A. Fisher, D. L. Hill, J. W. Grube, and E. L. Gruber, "Gay, Lesbian, and Bisexual Content on Television: A Quantitative Analysis Across Two Seasons," *J. of Homosexuality*, Vol.52, No.3, pp.167-188, 2007.
- [7] K. Battles and W. Hilton-Morrow, "Gay characters in conventional spaces: Will and Grace and the situation comedy genre,"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Vol.19, No.1, pp.87-105, 2002.
- [8] H. A. Shugart, "Reinventing Privilege: The New Gay Man in Contemporary Popular Media,"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Vol.20, No.1, pp.67-91, 2003.
- [9] F. Fejes, "Making a gay masculinity,"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Vol.17, No.1, pp.113-116, 2000.
- [10] S. L. Manuel, "Becoming the homovoyeur: consuming homosexual representation in *Queer as Folk*," *Social Semiotics*, Vol.19, No.3, pp.275-291, 2009.
- [11] S. A. Chambers, "Heteronormativity and The L Word: From a Politics of Representation to a Politics of Norms," In K. Akas, J. McCabe(Eds), *Reading The L Word: Outing Contemporary Television*, I.B.Tauris and Co. Ltd., pp.81-98, 2006.
- [12] B. Dow, "Ellen, Television, and the Politics of Gay and Lesbian Visibility,"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Vol.18, No.2, pp.123-140, 2001.
- [13] K. Battles and W. Hilton-Morrow, op. cit., p.99.
- [14] 홍지아, "드라마에 나타난 낭만적 동성애의 재현과 사랑 지상주의적 서사",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1호, pp.162-200, 2008,
- [15] 정여울, "대중문화에 나타난 '양성성'의 이미지-소설 및 드라마 『바람의 화원』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 제37권, pp.7-33, 2009.
- [16] 주창윤,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구조 : 동성애에 대한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7권, 제3호, pp.197-222, 2003
- [17] 최상민, "대중의 욕망과 드라마적 재현 : 김수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제36호, pp.199-223. 2012.
- [18] 조서연, "<인생은 아름다워>에 나타난 TV드라마의 동성애", *한국극예술연구*, 제35집, pp.365-401, 2012.
- [19] 우주현, 김순남, "'사람'의 행복할 권리와 '좀비-동성애자'의 해피엔딩 스토리 : <인생은 아름다워> 시청자 게시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8권, 제1호, pp.71-112, 2012.
- [20] 백선기, 김승희, "텔레비전 드라마의 갈등 표출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드라마 <아줌마>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10권, pp.157-195, 2001.
- [21] 김인영, "대인 갈등 조정의 서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1호, pp.87-116, 2010.
- [22] 하종원, "텔레비전 일일연속극에 나타난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7권, 제2호, pp.385-420, 2003.
- [23] 유진희, "김수현 홈드라마의 장르문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엄마가 뽀났다>를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1호, pp.102-112, 2010.

[24] 윤진숙,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pp.277-297, 2009.

[25]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신경정신의학, 제41권, 제5호, pp.930-941, 2002.

저 자 소 개

이 자 혜(Ja-Hye Lee)

정회원



- 1987년 2월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학사)
- 2001년 2월 : Paris 3 대학원(영화영상학 석사)
- 2005년 ~ 현재 :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방송영상전공 교수

<관심분야> : 영화이론, 영상문화이론, 콘텐츠 기획, 스토리텔링